

인간의 탐욕을 경고했던
화가 『보쉬』



박희숙

- 서양화가
-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산업대학원 미술석사
- 주간 이코노믹 리뷰 『박희숙의 명화읽기』 연재
- 월간 조선 『인물연구』 연재
- 강릉대학교 산업공학과 출강

남녀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성적 욕망은 삶의 기쁨을 주는 활력소이지만 성욕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자신은 물론 폐가망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성욕을 경고했던 화가가 보쉬다. 그는 종교적 도덕주의자로 그림을 통해 정신적 진리의 메시지를 담았다.

보쉬가 성욕을 경고한 작품이 <쾌락의 동산>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괴기한 물건들은 15세기에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그는 인간의 희망과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물건들을 창조했다.

3개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작품은 왼쪽 패널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보쉬의 상상력으로 채워진 이 패널은 수수께끼 같은 요소가 많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왼쪽 패널은 붉은 옷을 입은 그리스도가 아담과 이브의 결합을 축하하고 있다. 이 패널의 이야기는 아래에서부터 시작해 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스도 뒤로 생명의 샘 중앙에 기다란 장밋빛 조각이 우뚝 솟아 있다. 진기한 동물은 에덴동산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장밋빛 분수 안의 올빼미는 낙원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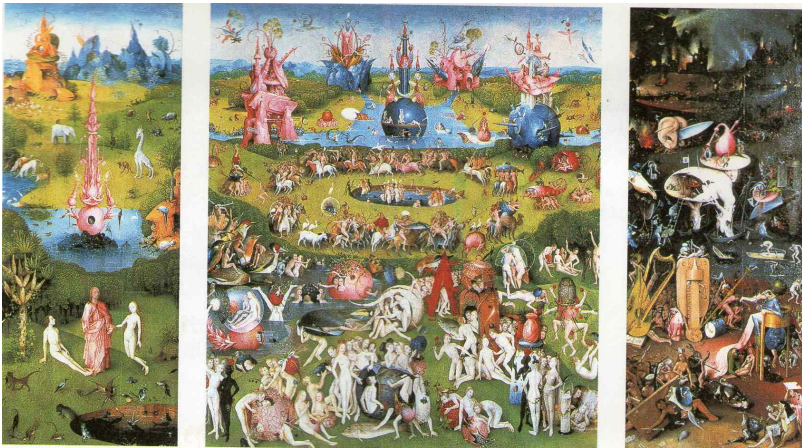
중앙 패널은 인간의 쾌락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넓은 정원에서 젊은 남녀들이 옷을 벗은 채 과일을 먹고 있거나, 새나 동물들과 어울리고, 물에서 장난을 치면서 희롱하고 있다. 연못에는 처녀들이 들어가 물놀이를 하고 있고 말

을 탄 남자들이 연못근처를 맴돌고 있으며 몇몇 형체들은 날개들을 달고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다. 연못 근처에서 짐승을 타고 있는 남자들은 당시 죄악과 정욕의 표시였다.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동물은 죄악의 다양한 얼굴을, 딸기와 앵두는 성적 욕망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왼쪽 아래 거품 속에 갇혀 있는 커플과 그 옆에 조개 껍질 안에 숨겨져 있는 커플은 육체적 쾌락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호수 위의 독특한 구조물은 보쉬가 창안한 것으로 쾌락을 상징하고 있는 탑이다.

마지막 오른쪽 패널은 지옥을 상징한다. 화면 위는 어두운 배경 속에 건물들이 불타오르고 있고 화면 중앙에 하얀색 괴물은 귀를 형상화 한 것으로서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라는 복음서의 메시지를 암시한다. 악기에 매달려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쾌락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주는 형벌을 암시한다.

보쉬는 이 작품에서 성적 쾌락을 좇은 삶은 인류의 영혼을 위협하다는 대한 경고를 담았다. 이국적인 구조물들은 당시 대중가요 격인, 속어로부터 보쉬가 영감을 얻어 에로틱한 상상력으로 그려낸 것들이다.



<쾌락의 동산>-1540년경, 패널에 유채, 중앙 패널 220*195, 양쪽 패널 220*97,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소장

보쉬는 작품에 인간이 악을 탐미하는 성향과 음란과 퇴폐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가 인간의 탐욕을 비판한 작품이 <긴초수레>다. 이 작품은 양쪽 패널은 인간의 삶과 끝을 보여주며 중앙 패널은 유혹의 위험들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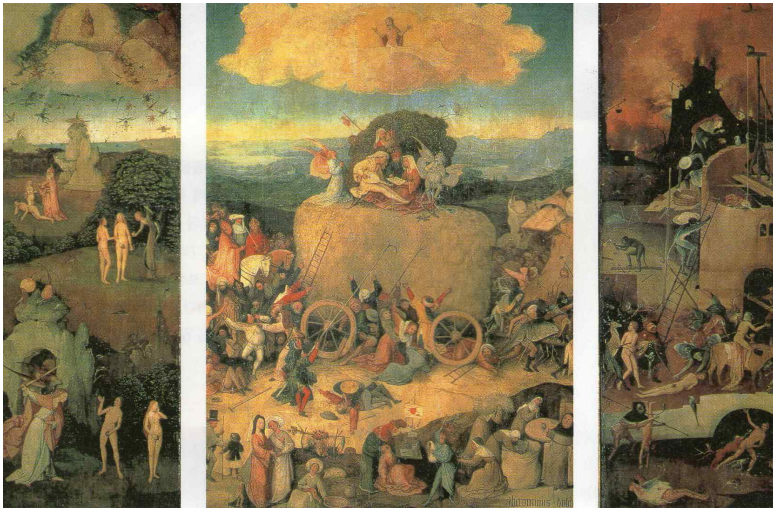
왼쪽 패널에서 아담과 이브가 세 번 등장하는데 이브의 창조와 원죄 그리고 에덴동산에서 추방이 위에서 아래로 그려졌다.

중앙 패널에서 마차에 실린 건초 꼭대기에서 천사가 인간을 위해 그리스도에게 중제를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고 하늘에 있는 구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수난의 상처를 보이며 서 있다. 하지만 건초 마차를 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

건초 수레 주변은 인간 세상을 풍자한다. 한쪽 방향을 달리고 있는 건초 수레는 부질없는 세상에서 일에 사로잡힌 인간을 의미하며 화려한 의상을 입고 말을 타고 있는 인물들은 교황과 프랑스 황제를 상징하고 있는데 권력을 쥔 사람도 죄악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른쪽 패널에서 악마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악마들은 벌을 받게 될 인간들을 수용할 탑을 만들기 위해서다.

히에로니무스 보쉬<1450경~1516>의 생애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지만 르네상스 양식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펼쳐 보여 당시 네덜란드 미술계에 독보적인 존재였다. 보쉬의 기괴하고 환상적인 작품들은 20세기에 들어서 초현실주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건초수레>-1517년경, 패널에 유채, 136*100<중앙>136*46<양쪽>,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소장